

일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해방은 연결되어 있다

- 장진영 회원 인터뷰

윤박 선전위원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조용히 국경을 넘은 사람이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한국 언론인 중 가장 먼저 들어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담은 프리랜서 사진활동가 장진영 회원이다. 그러나 귀국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권법 위반'이라는 실정법의 칼날과 벌금 500만 원 선고였다. 안전을 핑계로, 기록하는 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의 행정 편의주의 속에서, 프리랜서 언론인의 일할 권리와 시민들의 알 권리는 설 자리를 잃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시작한 장진영 회원을 만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월, 한국 언론인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우크라이나행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에 국내 매체 보도들을 보니까 대부분 외신 기사들을 짜깁기하거나

갈무리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현지의 진짜 현실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컸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그 비극적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전쟁터니까 당연히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분쟁 지역의 위험이라는 것도 성격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총알이나 미사일도 있겠지만, 진짜 위험은 사회적 질서와 규범이 완전히 무너져 민병대에 의한 납치가 일어나는 아노미(anomie) 상태겠지요. 제가 보기에 당시 우크라이나는 기초적인 사회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만 피한다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 이동이 무척 어려웠을 텐데, 어떤 경로로 이동하셨고 현장

에서 주로 어떤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셨나요?

한국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서 국경을 넘는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피난민들의 허브 역할을 하던 도시 르비우를 거쳐서 수도인 키이우까지 이동해 보름 정도 체류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쟁의 참사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일상이 일시에 멈춰버린 풍경과 그 속에서 발생한 거대한 피난 행렬을 담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단 1~2주 만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피난을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사 IN에 썼던 글에도 표현했지만, 그 현장은 한마디로 ‘분류된 이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의 터전을 등지고 쫓겨가듯 떠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붕괴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전쟁터는 흔히 폐허가 되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상상하곤 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우크라이나 모습은 어떠했나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법천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 시스템과 치안이 어느 만큼 유지되고 있었어요.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도시 전체가 울스톱 되었지만 상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도심 곳곳에 군인과 경찰들이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역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아니어서는 외지인인 제가 도심을 배회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치안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죠. 극단적인 재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에서, 무조건 막는 정부의 시선 너머에 엄연히 통제되고 유지되는 인간 사회의 일상을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수많은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일화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기차역에서 마주한 이별의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폴란드에서 르비우를 거쳐 수도 키이우에 도착한 다음 날, 키이우 중앙역 플랫폼에서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직업 군인이 아닌데 전쟁 발발 후 징집되었는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플랫폼에 서 있고, 그의 부인과 어린아이는 피난 기차 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나누던 그 가족의 눈빛이 가슴을 찜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로 오해를 받는 등 현지에서 겪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보름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동양인은 르비우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본인 포토저널리스트 한 명을 빼고는 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당시는 전쟁 초기라 러시아 스파이나 공작원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시내의 한 쇼핑 센터가 러시아 미사일에 폭격당했을 때, 알고 보니 어떤 스파이가 그 지점을 러시아 측에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나이 든 현지인 분이 군인을 데리고 저에게 와서 검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지 군인들이 보기에 사진 작가와 스파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제 여권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한국의 독립 사진가라는 점을 설명해 오해를 풀기도 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가는 안전 장비, 교육, 보험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프리랜서 노동자로서의 한계는 어떠했나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격전지나 위험 지역에 언론인을 진입시킬 때, 해당 기자가 속한 매체의 편집국과 직접 소통하며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대 언론사 소속 정규직 기자들은 안전장비 등을 지원받아 취재하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는 신원을 공식적으로 보증해줄 조직이 없기에 격전지 근처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양민 학살이 벌어졌던 부차라는 지역이 수도 키이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저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가보지 못했죠. 외교부가 나중에 임시로 마련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제’ 역시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의 언론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것도 격전지가 아닌, 안전한

후방 지역만 지정해주는 생색내기용이었죠.

장진영 회원이 찍은 사진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뒤 여권법 위반으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깊은 환멸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유흥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저널리즘 활동이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문에서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 피해가 취재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을 보면서,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기록하는 노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행정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 아픈 비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수학여행 자체를 아예 못 가게 했잖아요. 위험방지의 가장 쉬운 방법이 ‘사전 금지’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안전을 핑계로 경찰에게 강력범을 잡지 말라고 하거나, 소방관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는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주 노동자 내보내고, 프리랜서 노동자 보내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여권법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시나요?

OECD 국가 중 분쟁 지역 취재를 국가가



▲ 2026.9.20. 정진영회원 집 근처에서 만난 모습. 사진 : 윤박

사전 심사하고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거대 언론 자본은 위험 비용을 감당하기보다 매년 구독료를 내고 외신 통신사의 사진을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하기에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묵인해왔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외국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언론이 주도하여 워크숍을 통해 분쟁 지역 취재 시 지켜야 할 규칙과 돌발 상황 대응법을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국가가 취재권을 옥죄는 여행 허가제를 철폐하고, 언론인 스스로 책임과 안전을 관리하는 ‘신고제’ 형태로 법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단체에 신고하고,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며 취재할 수 있는 대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진영 회원께 응원을 보낼 《일터》 독자들과 한노보연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재판 지원을 위해 공대위가 꾸려졌을 때, 한노보연이 참여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있는 언론인의 안전 또한 노동안전보건의 거대하고 당연한 영역으로 포괄해 바라봐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해방과 당신의 해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노보연도 함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